

# 제 7 기 도요나카시 외국인 시민 회의보고 (개요판)

도요나카시에서는 외국인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5 년 7 월에 「외국인 시민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시민회의로 7 기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외국인 시민 9 명이 위원이 되어 2017 년 7 월부터 약 2 년간 5 회에 걸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 7 기의 테마는 「재해가 났을 때 외국인 시민 피난 지원과 외국인 시민에게 정보를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방재 비디오를 보거나 오사카 북부 지진이나 태풍 21호·24호의 경험을 토대로 곤란했던 점이나 깨달은 점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의견교환을 하며 각 위원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 년 4 월

도요나카시 외국인 시민회의 사무국

(인권정책과)

---

## 제 7 기 테마 「재해시의 외국인 시민의 피난 지원과 외국인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 회의에서 나왔던 주된 의견 (정리)

## 정보발신, 충실한 정보에 대해

### 《일상 정보》

- 일본어 팜플렛이라도 그림이나 한자 읽기표기가 있으면 알 수 있는 외국인도 많다.
- 책이나 문자로 보는 것보다 비디오 등 영상으로 보는 것이 알기 쉽다.
- 일본인이 말하는 일본식 영어를 잘 모르겠다.
- 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를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 일본인이나 일본에 오래 동안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도요나카 국제교류센터나 병원, 학교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재해 정보》

- 재해시 어떻게 하면 될지, 어디로 피하면 될 지,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 곳에 따라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다. 바른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필요.
- 피난소 지도나 중요 포인트를 정리한 다언어 방재 가이드 맵이나 팜플렛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 선거차량 등을 이용해 정전이나 쓰레기 처리방법 등 재해 정보를 발신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 재해시에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소를 가르쳐 주는 방재어플리케이션,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다.

## 커뮤니티 · 지역과의 연결

-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귀기가 줄어들고 외국인은 고립되기 쉽다.
- 재해시 등에 바른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는 인재를 육성. 같은 나라, 같은 언어

사람이라면 안심·공감할 수 있다.

- SNS 등에 생활이 비슷한 사람들 그룹을 만들어 일상 생활의 이벤트 정보 공유나 교류 등에 활용하고, 긴급시 정보 알리거나 교환할 수 있다.

## 재해를 경험하고 드는 생각과 느낀 점

위원들이 실제로 2018년 6월 18일에 일어난 오사카 북부 지진이나 9월에 발생한 태풍 21호, 24호를 경험하고 생각한 점과 알게 된 점에 대해 워크숍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재해가 나기 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필요한 것·정보》

- 일본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알 수 있는 지도를 배포 (「방재맵」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 보존식, 음료수, 랜턴, 모포, 피난세트 (옷 등) 를 준비한다.
- 피난 루트와 피난 장소를 알아둔다.
- 베란다의 화분이나 빨래봉이 날라가지 않도록 한다.
- 재해용 게시판의 사용방법이나 안부확인 방법 등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둔다.
- 모국어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해 둔다.
- 전기나 수도가 끊어졌을 경우를 대비해 그 준비 방법을 알아 둔다.
- 언제 재해가 발생해도 문제없도록 준비해 둔다.

### 《재해가 난 후 곤란한 점》

-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난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
- 지진 후 전기는 들어와도 전화가 되지 않았다.
- 피해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몰라 보험신청을 하지 않았다.
- 여진이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 태풍이 다 지나갔는데도 알람이 없어 안심할 수 없었다.
- 태풍이 왔을 때, 가게들이 빨리 문을 닫아 곤란했다.
- 태풍의 영향으로 3일간 정전이 되어 회사도 3일간 쉬었다.

### 《재해가 난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 필요한 것 · 정보》

- 피난 타이밍이나 아이를 마중가는 타이밍을 모국어로 가르쳐 주면 좋겠다.
- 단수 · 정전대책
- 충전기, 핸드폰
- 정보를 모국어로 메일이나 스피커를 이용해 가르쳐주면 좋겠다.
- 날라오는 쓰레기로부터 자신과 집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 유리가 깨지면 위험하므로 주의한다.
- TV 나 인터넷의 태풍 상황은 1 시간마다인데 그때그때 태풍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

### 《앞으로 자신이 준비할 것》

- 피난 루트와 장소를 가족과 정해 둔다.
- 서바이벌 기술을 배운다.
- 가구 등을 고정한다.
- 친구와 SNS 등으로 정보를 나눈다.
- 태풍 때, 커튼을 닫는다.

### 《앞으로 도요나카시 · 국제교류센터 · 지역에 바라는 점》

- 재해가 나면 바로 메일이나 스피커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주기 바란다.
- 그 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카운셀링이 있으면 좋다.
- 재해 전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해 주기 바란다.
- 비상사태에 공적시설을 피난소로 시민에게 개방하기 바란다.
- 태풍으로 부서진 수도관 수선공사가 지체되었다.
-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
- 바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 국 대표가 있으면 정보가 전달되기 쉽다.
- 모국어로 된 정보를 늘려주기 바란다.
- 방재에 관한 문제집이 있으면 좋겠다.